

【연구논문】

상징적 백인성의 욕망과 『척하는 삶』*

권영희

(서울시립대학교)

1. 들어가며: 두 겹의 서사와 백인성의 문제

창래 리(Chang-rae Lee)의 『척하는 삶』(*A Gesture Life*)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인물이 등장하는 문제작으로 1999년 출간된 후 한국 영문학계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왔다.¹⁾ 저자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서울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면담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위안부 주인공의 시점에서 200쪽이 넘는 원고를 작성했다. 하지만, 원고의 작성성에 불만을 느껴 중도에 집필을 포기하려던 어느 날 일본군 의무장교 인물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의 시점에서 위안부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도록 내용을 바꿨다고 한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 결과 『척하는 삶』은 원래 계획과 달리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소설이 아니라 언제나 주

* 이 논문은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1) ‘위안부’보다는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태의 본질에 가깝기 때문에 ‘위안부’라는 단어는 언제나 따옴표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일본군을 위해 강제 동원되었고 처참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어떻게 칭칭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쟁 범죄 자체의 진실 규명이나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과 관련해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띠는 까닭이다. 창래 리 역시 『척하는 삶』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의식을 보여준다. 이 점을 지적하고 이후 논의에서는 단지 편의상 따옴표를 생략하기로 한다. 『척하는 삶』에 대한 한국 영문학계의 관심은 필자가 검토한 국내외 논문 29편 가운데 19편이 국내 영문학자에 의해 산출되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권영희

도적인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했던 한 인물과 그 욕망 때문에 일어난 삶의 상흔들에 관한 소설이 되었다(Schiff 330).

1940년 대 초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의무장교로 복무한 주인공은 이후 미국 이민을 선택하여 뉴욕 교외 도시에서 의료기 판매상을 열고 경제적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 사회에 안착한다. 1990년 대 현재 이제 70대 노인이 된 그가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리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주로 되비추기(flashback) 기법에 기대어 1인칭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프랭클린 하타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내용들과 소설 속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교차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하타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고 종전 후 미국으로 이주한 인물인 까닭에 노인이 된 그가 회상하는 사건들 역시 전시에 일어난 사건들과 미국에서의 삶으로 크게 양분된다. 주변 인물 중심으로 보면, 전시에 하타가 사랑했던 한국인 여성 끝애, 미국 베들리 런에 정착한 후 하타가 입양해서 키운 씨니, 그리고 이웃집 여성으로 하타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결별한 메리 번즈가 주인공의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척하는 삶』이 비평가들, 특히 한국 영문학자들에게 비상한 주목을 끈 주된 이유는 한국인 위안부 인물인 끝애와 그녀에 대한 주인공의 기억이 서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창래 리가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이 작품은 위안부에 관한 소설은 아니지만 끝애에 관한 내용이 서사의 “동력”(driving force)임은 분명하다(Schiff 330). 이처럼 비록 저자의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한국 역사의 대표적인 트라우마 사건으로, 2017년 현재도 일본 정부와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 한국 여성들, 그리고 양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이 소설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는 것이다. 위안부 여성을 주요 인물로 삼은 것 자체만으로 『척하는 삶』은 정치적 효과를 낸다고 할 수도 있다. 1999년 출간 당시 이 소설이 평론가들로부터 고른 상찬을 받으

며 미국 독자 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정치적 효과를 한층 더 중요하게 만든다.

현재까지 이 문제는 다수의 국내외 논문에서 분석되었다. 가령, 유제분은 “서발턴”(subaltern) 개념으로 『척하는 삶』이 위안부 인물을 재현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끝애, 즉 K가 “말하는 주체”이자 ‘저항하는 주체’로 설정되어있다고 본다(85). 동시에 이 소설이 그녀를 민족주의적 담론을 통해 “조선의 딸”로 기호화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나(94), 궁극적으로는 저자가 “종군위안부에 대한 기억과 재현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종군위안부 역사가 한 개인에 드리운 짐과 책임의식의 깊이에 주목한”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88-89). 하타의 기억하기에 비판적 자기 성찰을 수반한 애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러한 관점은 사실 많은 평자들이 공유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형식과 정체성의 정치성 문제에 천착하여 『척하는 삶』을 읽는 크리스토퍼 리(Christopher Lee)는 이 소설이 정체성의 정치성이 내포하는 본질주의적 함의를 비판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리얼리즘 소설 양식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구현한다는 평가를 내린다. 리 역시 유제분과 비슷하게 K가 “이상화되고 심지어 낭만화된 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진실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본다(108, 106). 반면 리의 읽기와 정반대의 관점을 취하는 이석구(Suk Koo Rhee)의 경우, 위안부로 설정된 끝애가 로맨스의 대상이 되는 서사 자체가 고딕소설의 틀을 차용하는 측면이 있으며, 나아가 끝애와 그녀의 육체를 미학적이고 관음증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어 서구 독자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을 비판한다. 본고에서는 이석구의 비판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관점에서 백인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이 소설이 끝애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문제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척하는 삶』이 정체성의 범주들을 해체하는 측면을 강조한 리의 해석은 주인공의 초국가적, 다민족적 주체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이를 탈식민

4 권영희

주의 이론에서 많이 논의된 문화적 혼종성 개념과 간(間)주체적 가능성의 견지에서 해석하는 비평들의 연장선에 놓인다(Carroll, Y-O Lee 2009, 김미현 2010). 이러한 시각의 논의들은 재일조선인 배경을 지닌 하타가 일본인으로 살기 위해 한국인 정체성을 억압했으나 끝애를 사랑하게 되면서 내적 분열이 심화되었다는 점, 치욕을 당하기 전에 죽여 달라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결정적인 순간 일본군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끝애가 당하게 될 잔인한 최후를 방조하였고 이 때문에 그에게 끝애가 깊은 상흔으로 남는 점에 주목한다. 더불어, 이 트라우마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이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함으로써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하타의 시도를 불가능하게 하며,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의 윤리적 함의는 말미에서 제시된 하타의 변화, 즉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를 주인공이 수용하게 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민자 주인공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어떤 성찰에 도달하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가에 주안점을 둔 이러한 읽기는 『척하는 삶』이 기존 이민자 서사의 교양소설 틀에서 벗어나 한미일 삼국의 역사를 아우르는 초국가성과 주인공의 다민족적 주체성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²⁾ 가부장제적 여성 억압의 문제뿐 아니라, 식민주의적 폭력과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을 서로 밀접하게 관련 짓고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냄으로써 주목할 만한 비판적인 관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보편타당한 해석으로 생각되기 쉬운 이 독법의 두 가지 전제들을 짚어보려 한다. 우선 생각할 점은 간주체에 관한 바바의 논의를 단순화하여, 초국가적, 다민족적 주체성이 그것 자체로 비판적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가정이다. 수전 코쉬(Susan Koshy)가 아시아계 미국인 집단

2) 가령, 캐롤은 이 소설이 “교양소설의 기본 틀을 해체하여 그 핵심에 놓인 인종과 젠더 상의 치명적인 논리들”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본다(593). 김미현(2010), 이영옥(2005, 2009)도 비슷한 관점을 보여준다.

의 역사적인 변이를 논의하면서 강조한 것처럼 아시아계 이민자 주체들은 초국가적 유산자 계급의 일원으로 특권을 누리는 이들부터 같은 인종과 민족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욱 심한 착취를 당하도록 내몰린 사람들까지 다양한 권력관계의 그물망 속에 위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백인성 개념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척하는 삶』의 정치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빠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함정은 이 소설의 리얼리즘적 틀 안에서 1인칭 서술의 진실성 여부를 문제 삼는 대신 당연시하는 관점이다. 앞서 언급한 크리스토퍼 리가 하타를 신뢰할 수 없는 화자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하타가 서술하는 과거 사건들과 인물들은 어디까지나 그가 나름의 방식으로 구성한 기억의 결과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척하는 삶』이 소설의 요건 자체를 문제시하는 전형적 메타소설은 아니지만 서술 내용을 구성하고 변형하고 통제하는 하타의 매개자 역할은 물론이고 현재와 과거를 교차시키는 이중 서술구조가 이 소설의 메타소설적 측면을 암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안부 인물에서 의무장교로 시점을 바꾸면서 작품의 성격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고 저자가 말했듯이 이 소설은 과거에 일어난 일과 현재 시점에서 그것이 기억되는 방식, 즉 ‘경험하는 나’와 ‘서술하는 나’ 사이의 간극 내지는 전자가 후자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을 지극히 자의식적으로 암시하는 텍스트이다.

이런 측면은 K를 연모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회고 내용 중 하타와 K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언급하는 다음 대목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아마 당신이 내게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려줄 수 있다면 마치 그 인물들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는 척할 수도 있겠죠. 자기네 고유한 문제들에 휘말린 그 소설 속 유럽 사람들 말이에요. 틀림없이 아주 흥미진진할거예요.” (249면)

“Maybe you can describe the stories to me, and we could pretend we

6 권영희

were in their lives, those European people in the novels, involved with their own particular problems, which I am sure must be very compelling.”

(249, 강조 추가)

입대 전 학창시절에 하타가 즐겨 읽었다는 프랑스와 독일 소설들의 내용을 궁금해 하며 K가 하는 말이다. 물론 이 구절은 그녀가 처한 끔찍한 상황에서 이런 대화가 오갈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하타가 서술하는 사랑 이야기 자체의 뾰족성을 문제 삼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좀 더 미묘한 문제로, 서양소설 속 유럽인 인물들이나 그들에게 고유한 문제들이 무척 흥미진진할 것 같다는 대목은 이석구가 비판한 것처럼 한국인 위안부 인물을 로맨스의 여주인공으로 만드는 이 소설의 구도 자체, 즉 제국주의 억압의 당사자를 흥미로운 이야기 소재로 삼는 문제적 측면을 환기시킨다. 따라서, 이 대목은 『척하는 삶』이 참여한 정치적 의미를 띤 역사적 사건을 “독자의 마음을 잡아 끄는”(compelling) 이야기로 활용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는 점을 스스로 의식하는 자기지시적 순간인 것이다.

그런데 이 대목의 문제적 측면은 메타소설적 자기지시성에서 끝나지 않는다. 위 구절이 K라는 인물과 그녀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을 토대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구성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려고 했지만 도저히 쓸 수 없었던 창래 리는 하타의 시점에 착안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았고 그 결과 소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되었다. 하지만 위안부 인물을 여전히 서사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한 하타를 통해 저자는 (또한 그와 공모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독자들 또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척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위안부 인물을 기반으로 제국주의 폭력의 참상을 연애 서사의 틀 안에서 보여주는 이 소설은 애초부터 일종의 제스처, 즉 ‘진실’을 구현하고 전달하는 척하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본고는 위에서 인용한 K의 말을 텍스트적 무의식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읽고자 한다. 즉, K가 알고 싶어하는 “서양소설”은 다름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에워싸고 조건 짓는 담론적 틀에 해당하며, “유럽인 인물들”이 바로 그녀 자신과 서술자인 하타를 주체로 구성하는 준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척하는 삶』의 이중적 서사구조를 생각해보면, 가까운 과거와 소설 속 현재 시점에서 써니와 메리를 중심으로 하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다룬 “미국 이야기”는 그 자체로는 서사적 동력을 갖지 못하기에 버마의 일본군 기지에서 일어난, K를 둘러싼 “아시아 이야기”가 필수적 보완물로, 또는 서사적 에너지의 원천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계 미국인인 창래 리와 같은 작가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독자들에게 다른 지역의 역사와 인종 및 문화적 타자성의 내용들을 서사 상품으로 만들어 제공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해왔으며 이는 분명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들 모두의 자산이자 부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척하는 삶』의 경우, 써니와 메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이야기가 끝애에 초점이 맞춰진 아시아 이야기와 구조적인 병렬성을 띠면서 타자성의 상품화를 넘어서는 의미 작용을 한다고 봐야 한다. 하타의 정신역학(psychodynamics) 안에서 써니는 K의 대체물이며 이 두 여성 인물이 분신(double)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해석으로 지금까지 많은 비평들에서 다양하게 분석되었다(Carroll, Y-O Lee, S. H. Lee). 한편, 미국이야기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으로 기능하는 중산 계급 백인여성 메리는 끝애가 알고 싶어 했던 “그들 나름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서양소설의 주인공에 가장 근접하는 인물인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런데, 하타와 그녀의 실패한 관계가 K와 써니에 대한 기억을 주로 다룬 이 소설 서사에서 어떤 의미 작용을 하는지는 현재까지 나온 비평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두 이야기가 구조적 병렬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메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이야기가 K에 관한 아시아 이야기를 텍스트적으로 전유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자 한다. 여러 평자들의 해석대로 『척하는 삶』의 서사적 핵심은 K와 하타에게 일어난 일들과 그 사건이 하타에게 끼친 영향, 그리고 씨니와의 관계가 K와의 관계를 “섬뜩하게 반복”하는 측면일 것이다(Carroll 612). 동시에, 아시아 이야기 자체가 미국 이야기의 전제들에 기대고 있을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는데, 본고는 전자의 주요 인물들, 즉 오노 대위, K, 전쟁 당시의 ‘젊은’ 하타의 주체성과 그들의 관계가 미국 이야기를 지배하는 주체 구성의 틀, 즉 상징적 백인성과 그것을 향한 욕망에 대해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³⁾ 이러한 가정들을 검토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바바의 문화적 혼종성이나 간주체성 개념으로 하타의 주체 구성을 분석하는 기존 비평의 틀에서 벗어나 르네 지라르의 모방적 욕망 개념과 세사드리 크룩스의 백인성 개념을 원용하고자 한다. 아래 이어지는 절에서 먼저 지라르의 욕망 이론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세사드리 크룩스가 개진한 백인성 개념의 맥락, 이론적 가능성 및 한계점을 논의한 후 『척하는 삶』의 이중서술 구조가 지니는 함의를 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3) 『척하는 삶』에서 백인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창래 리의 데뷔작 『네이티브 스피커』에 대해서는 “이념적 백인성”(doxic whiteness) 개념을 적용한 팀 앵글즈(Tim Engles)의 분석, “백인화의 욕망”이 자발적 종속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이관수의 관점, 『척하는 삶』에 이어 발표된 『비상』(Alofi)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 신혜원(Shin Hyewon)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본고에서 “상징적 백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는 라깡 이론을 바탕으로 세사드리 크룩스가 개념화한 백인성의 통찰에 기대고 있지만 라깡이 말하는 상징계적 질서뿐만 아니라 상상계와 실제계의 차원들을 모두 아우르는 중심 기표로서 백인성의 효과들에 주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백인 주체뿐 아니라, 비백인 주체 역시 인종화된 주체로 성립시키는 기제로서 백인성 개념을 원용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 백인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2. 욕망의 모방적 본질과 인종의 지배 기표로서 백인성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에 따르면, 욕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대상을 직접 향한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 그는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고 있다. 주체-모델-대상이 구성하는 욕망의 삼각형으로 지라르가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욕망은 언제나 중개되는 방식으로 일어나며 이런 이유에서 주체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모방하는 모델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연애소설 속의 삼각관계는 욕망의 이러한 구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바, 남성 주인공이 연적과 한 아름다운 여성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구도에서 그의 욕망은 대상을 향하는 순수한 열정이기보다는 상대방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성립 유지되는 것이다. 지라르의 이러한 모방 욕망 개념을 퀴어이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이브 코소프스키 세즈윅(Eve Kosofsky Sedgwick)은 이성애적 연애 관계의 본질이 욕망하는 남성 주체와 그의 욕망을 중개하는 다른 남성 주체 사이의 동성(애)적 연대(homosocial bonding)로서 이것이 이성애중심주의의 이념적 지지대임을 갈파하였다. 이처럼 지라르와 세즈윅의 매개된 욕망 개념은 사랑 이야기를 서사의 핵심으로 삼는 다수의 소설 텍스트들에 생산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어왔지만, 탈식민주의 비평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그 이론적 가능성이 풍부하게 탐구되지 못한 상태이다.

백인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칼파나 세사드라-크룩스의 논의는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척하는 삶』이 백인 작가가 쓴 작품도 아니며, 백인 인물이 주인공인 작품도 아닌데 왜 백인성 개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모방된 욕망 개념과 더불어 세사드라-크룩스의 백인성 논의는 바로 그런 의문의 토대를 되묻는 지점, 즉 백인성이 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 중요성이 있다. 세사드라-크룩스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사회가 공식화된 후에도 여전히 인종 개념이 폐기되지 않고 우리 곁에 있으며 인종적 사고와 그 부작용이 지속되는 상황에 주목

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종주의 질서와 담론에 대항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이론적 탐구는 어디까지나 인종 개념 자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녀는 라깡 정신분석 이론을 도입하여 백인성 개념을 재정립하고 백인성을 욕망하게 만드는 인종의 정신역화에 대한 통찰력 있는 논의를 제공한다. 그 주된 내용은 백인성이 인종화된 세상을 사는 모든 주체들로 하여금 주체로 성립하게 만드는 근본 요건, 즉 인종 개념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지배 기표”(master signifier)라는 주장이다 (3). 다시 말해, 백인성이 없다면 인종 개념과 인종적 구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사드라-크룩스가 개념화하는 백인성은 현실 세계에서 ‘백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지니는 어떤 자질들, 즉 피부색, 머리카락 색깔, 신체적 특징 따위를 지시하기보다는 인종화 기제 자체를 성립시키고 이를 제도로서 유지 존속시키는 상징체계상의 근본 토대이다. 이처럼 백인성을 라깡이 말한 상징계 질서의 핵심으로 파악할 때 그것의 본질은 주체가 상징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을 메워줄 수 있는 어떤 것, 혹은 상징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본원적인 결여의 저편에 놓인 존재의 “절대적인 완전함”(absolute wholeness)을 지시하는 데 있다(7). 그러므로 인종화한 사회 속의 (‘백인’들을 포함한) 모든 주체는 백인성을 욕망하도록 조건 지워져 있다. 특히, 인종주의 담론에서 완전한 인간성을 갖춘 존재로서 백인과 그렇지 못한 존재로서 비(非)백인 집단들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인종 위계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백인성에 대한 욕망은 결국 인간성 자체를 완전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된다.

지라르의 모방 욕망 이론으로 이러한 백인성 개념을 비추어보면, 비백인 주체가 대상으로서 백인을 직접적으로 욕망하거나 백인의 자질을 공유하고 싶어한다기보다는 그의 욕망을 중개하는 모델인 백인 주체의 욕망을 모방하고 답습한다는 사실을 좀 더 뚜렷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그 중개된 욕망의 내용은 물론 욕망의 대상으로서 백인성의 핵심, 즉 인간존

재로서의 완전성과 이에 대한 신화적 믿음이다. 세사드라-크룩스는 백인성에 대한 이러한 신화와 이것이 떠받치는 인종화 시스템이 영속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인종 자체가 철저하게 역사적, 문화적, 담론적 구성물이라는 사실로부터 모종의 근원적 불안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불안을 무마하는 방편으로 인종은 철저히 시각적인 차이들, 즉 피부색을 비롯한 신체적 특징들과 결합함으로써 원래는 지극히 우연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들이 마치 초역사적이고 생래적이며 본질적인 차이들인 것처럼 바뀌어 위계구조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사드라-크룩스의 백인성 이론은 주로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기존의 비판적 백인성 연구와 비교할 때 유색인종 집단을 포괄한 인종적 위계의 토대 자체를 문제삼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차이를 지닌다. 라캉의 상징계 개념을 통해 인종 자체를 상징계적 질서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보는 그녀의 관점은 인종적 범주들이 기호 체계 속에서 강고하게 유지되며 백인성의 욕망을 지속시키는 상황을 적시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백인성 개념으로는 이론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실증적 백인성 연구 분야의 핵심적인 통찰인 계급과 백인성의 상호작용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미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아일랜드계 이민노동자들이 비백인 지위에서 백인으로 재구성되었던 것이나(Ignatiev), 미국 백인노동계급에게 백인성이 일종의 임금 외적인 보상으로 지급되는 상황은(Roediger) 백인성이 철저히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이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복무해왔음을 입증한다. 미국의 꿈 자체가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백인성의 확장 가능성과 차별적 분배가능성에 있으며, 계급이 백인성을 향한 욕망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는 최근 연구들 가운데, 특히 코쉬는 1950년 대 미국 미시시피주 중국계 이민자 집단이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백인으로 재구성되는 경위를 검토하면서 백인성을 “권력으로서 백인성”과 “문화

로서 백인성”으로 나눠 생각할 것을 제안한다(186). 미시시피주 중국계 미국인들은 흑인들과 백인들 사이에 낀 중간자적 주체들로서 문화로서 백인성은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고유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권력으로서 백인성과 스스로의 주체성을 동일시하여 그것을 전유했다는 것이다.⁴⁾ 문화로서의 백인성과 구분되는 권력으로서 백인성 개념은 백인성이 언제나 흑인성과의 이분법적 대립항을 전제하는 기제임을 확인시켜준다. 이처럼 백인성은 공식적인 이념과 제도로 자리잡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틀 속에서 인류학, 민족적, 문화적 범주로 기능하는 동시에, 인종화된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를 유지 심화시키는 권력의 범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척하는 삶』에서 하타의 서술은 국가, 민족, 인종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주체 구성의 문제를 보여주는 바, 아래 절에서 인종적 차이의 지배 기표로서 백인성과 백인성에 대한 욕망, 계급적 지배를 떠받치는 권력으로서 백인성이 어떤 텍스트적인 효과와 의미를 생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척하는 삶』에 구현된 모방된 욕망과 상징적 백인성의 양상들

K가 하타에게 듣고 싶어했던 서양소설 속 유럽인 인물들이 실은 그녀 자신과 그녀의 이야기를 조건 짓는 틀에 해당한다는 점은 『척하는 삶』이 기반을 둔 욕망의 삼각구도를 통해 볼 때 뚜렷하게 드러난다. 하타는 자신과 관련된 인물들이 한결같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됨을 자조적으로 지적하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세 여성, K, 메리, 씨니와의 관계에는 예외 없이 의사 인물이 개입되어있다. 베들리 런에서 의료가 판

4) 미시시피주 중국계 미국인들이 백인화한 경위를 다룬 연구로는 Koshy도 인용하고 있는 Loewen 참조. 문화서지학적 방법론으로 미국 교외지역에서 백인성이 비백인 집단에게 확산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로는 Warren and Twine을 참조하였음.

매상 주인으로 손님들에게 이런저런 의료 지식을 전한 결과 닥 하타라고 불리게 된 주인공의 원래 꿈이 의사이기도 했지만 군의관이자 직속 상관인 오노대위, 메리 번즈(Mary Burns)의 전남편 닥터 번즈, 그리고 씨니에게 무리하게 중절수술을 시키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닥터 애나스타샤(Anastasia)가 그들이다. 하타와 K의 사랑 이야기와 다른 축에 자리한 하타와 메리의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때에도 제3자인 의사 인물의 매개 작용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즉, 지라르가 말하는 욕망의 삼각구도와 같이 K와 메리에 대한 하타의 욕망은 각기 오노대위와 닥터 번즈라는 다른 남성 인물의 욕망을 모방한 결과물로 읽을 수 있다.

먼저 오노대위를 살펴보면, K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그는 하타에게 이상적인 역할모델이다. 제국주의적 남성성을 체현한 그는 투철한 직업의식, 충성심, 강박적인 완벽주의, 의사로서 실력과 자신감, 민족적 우월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인물로 상류계급 출신이다. 그는 자주 부하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휘두르며 재일조선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에서 하타에게 모멸적인 언사를 일삼지만, 그럼에도 하타는 오노대위와 같은 유능한 의사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이처럼 오노대위가 하타의 역할모델이 되는 상황에서 주목할 측면은 일본인 정체성(Japaneseness)이 하타에게 욕망의 대상으로 구축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끝애가 등장하기 오래 전부터 하타는 오노대위가 체현하는 바 일본인 정체성을 욕망해왔고 이 정체성은 제국의 명분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남성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실 일본인 정체성은 지로 구로하타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가 미국으로 건너 온 후 프랭클린 하타 내지는 닥 하타로서의 삶을 살게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지배적인 정체성으로 남는다. 주인공의 초국가적 다민족적 정체성에 주목하는 비평가들 대부분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하타는 성공적으로 미국 중산계급 사회에 진입하고 충분히 문화적으로 동화한 후에도 자신을 일본계 미국인이라기보다는 일본인으로 간주한다. 베들리 런에

자신처럼 지혜로운 “동양인”(Oriental) 노신사가 거주한다는 사실이 “도시를 승인하는”(town-affirming) 효과가 있다고 진술할 때, 동양인이라는 표현에 아이러니나 인종적 편견에 대한 불만은 거의 묻어나지 않는다(1-2). 씨니와의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하타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평판을 의식하며 살아왔다는 씨니의 비판에 자신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노라고 말한다(95). 이처럼 창래 리는 하타를 한미일 세 나라의 정체성을 모두 가진 인물로 설정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인 정체성을 가장 두드러진 측면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는 그가 직접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한다. 단적으로 말해, 하타는 조선인 부모에게 태어났고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지만 어디까지나 일본인인 것이다.⁵⁾

그렇다면, 이런 하타에게 상징적 백인성은 어떤 작용을 하며, 그의 일본인 정체성과 어떤 관련을 맺는 것일까? 오노대위, K, 하타로 구성되는 욕망의 삼각구도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생각해볼 때, 먼저 K의 주체성이 이중적이라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하타가 그녀의 이름을 K로 줄여 부른다는 점이 시사하듯이, 그녀는 식민지인으로서 비체화된 민족적 정체성을 체현하는 인물이며, 이 때문에 하타에게 억압해온 자신의 재일조선인 배경이 마치 억압된 것의 귀환처럼 되살아난다. 한국인 정체성의 억압은 하타에게 미국 이민 후에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소설 도입부에서 자신을 일본계 미국인으로 소개한 후 무려 70면이 지나서야 실은 자신이 고베의 재일조선인 계통에서 태어났으며 얼마 후 부유한 일본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성장했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5) 물론 자신의 일본인 정체성을 하타가 베들리 린 사회에서 강조하거나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소설의 첫 문장에서부터 그는 자신이 미국 사회에 철저하게 동화된 존재임을 강조한다. 이는 비백인 집단의 동화 전략으로서 스스로를 비가시적인 존재로 만드는 일이고 수행적 주체성이라는 함의를 띤다. 이러한 측면을 예리하게 분석한 선행 연구로 Cheng을 들 수 있다. 하타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일본인 정체성을 폐기하고자 했다는 관점을 대표하는 연구로 Y-O, Lee 2009, 이와 반대로 본고와 비슷한 관점에서 하타가 일본인 정체성을 견지한다고 보는 평자로는 Christopher Lee가 있다.

술회하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여러 평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씨니와의 관계에서도 애초에 원한 일본인 소녀 대신에 자신에게 온 가무잡잡한 얼굴의 씨니를 보며 하타는 아이의 어머니가 아마도 미국인 GI들을 상대하는 여급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이 때문에 씨니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어긋난다.

다른 한편, 하타는 자신을 동족으로 ‘소환’하는 K의 시도에 처음에는 완강히 저항하지만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 그녀와 말을 나누면서 그녀와 연결되어었다고 느낀다. 물론 이러한 내밀한 소통의 결과 하타가 내면화했던 비체화된 한국인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소지가 있다(유제분 89; 이소희 2006, 145). 그런데 오노대위를 욕망의 중개자로 볼 경우 K에 대한 하타의 “사랑”에서 핵심은 그녀의 한국인(조선인) 정체성이 아니다. 하타가 K에게 주목한 경위 자체가 오노대위가 그녀를 특별하게 취급했기 때문이다. K는 다른 한국인 여성 네 명과 함께 하타가 소속된 일본군 부대에 끌려오지만 오노대위의 명령으로, 다른 여성들처럼 위안소로 가는 대신 하타가 일하는 의무실 벽장에서 갇혀 지내게 된다. 오노대위는 K가 다른 여성들은 물론이고 병사들에게도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관찰 대상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감시하고 돌보는 일을 하타에게 위임한다. 오노대위의 관점이 하타의 욕망을 조건 짓는다는 사실은 다음 구절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하타가 K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눈치 챈 오노대위는 그를 질책하며 자신이 그녀를 특별 취급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 여자애에 관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뒤. 자네 그 애한테 관심이 생긴 게 분명하군.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 아주 예쁘장한 계집애니까 말이야. 물론, 성적으로 매력있다는 뜻은 아니야. … 하지만 그 애 확실히 존재감이 있고 의지력과 생기도 남아있지. 자넨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을 거야. 중위 자네가 받은 교조적 교육에서는 달리 가르쳤겠지만, 실은 순수 혈통 일본인들과 피를 공유하는, 특

별하고 고귀한 인격을 갖춘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일부 존재하니까. 그 여자애와 나 같은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단 말이지, 아주 뚜렷하게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 비록 멀리 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야.” (268)

“About the girl, Lieutenant, I will say this. You have obviously taken an interest in her, which is of course unavoidable. She is most comely, though I say that not to describe her sexual attraction. ... But as for this girl, she has a definite presence and will and lively spirit. There's clear breeding there, if you didn't quite know. Unlike what you were probably taught in your special indoctrinated schooling, Lieutenant, there are indeed Chinese and Koreans of special and high character, in fact, of the same bloodlines as the most pure Japanese. There is a *commonality between someone like her and me, a distinct correspondence*, if one very distant. This is one of the reasons I've separated her...” (268 강조 추가)

이 대목에서 오노대위는 배타적이고 교조적인 일제의 공식 인종담론과는 달리 민족적 차이를 넘어 “혈통”을 공유하는 “특별하고 고귀한 자질”을 지닌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이 있다면서, K와 자신이 바로 이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서로를 이어주는 끈”을 갖는다고 한다. 이 말에 반발하는 하타는 오노대위가 말하는 “끈”이 한국인으로서 자신과 끝애가 공유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하타에게 끝애가 더 이상 비체화한 한국인이 아니라 자신이 동일시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그녀의 상류계급 배경에서 온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위에서 인용한 오노대위의 말은 하타의 욕망을 매개하는 그의 서사적 역할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끝애의 아름다운 용모는 그 자체로 하타의 욕망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상류계급의 혈통과 교양을 갖춘 존재라는 오노대위의 말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하타에게 특별한 것으로 만들며, 이를 계기로 그는 자기 내면에 억압한 비체화한 한국인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는 하타가 오노대위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며 오

히려 반발심을 느끼지만 의식의 심층에서는 끝애를 조선인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적 차이를 뛰어넘는 특별한 우월성의 표지로 삼고 이를 욕망하게 된다는 것이다.⁶⁾ 오노대위의 논리에 따르면 그 우월성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이념과 부합하는 것으로 계급적 구분이 민족적 차이에 선행한다는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결국 하타는 그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끝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노대위를 따라 오노대위가 동일시하는 끝애와 동일시하며 그녀가 표상하는 어떤 배타적인 특별함이나 우월성을 욕망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창래 리는 하타와 K의 관계를 메리와의 관계와 나란히 놓음으로써 우월한 일본인 정체성을 향한 욕망이 상징적 백인성의 욕망과 중첩되도록 한다. 하타, 오노대위, K로 구성된 아시아 이야기의 사랑 이야기가 미국 이야기의 틀 안에 위치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인 정체성 자체가 백인성의 요건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역사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이념이 서구 제국주의를 모델 삼아 구축되었고 아시아의 지배 민족을 자처한 제국주의적 일본인 정체성이 백인성을 성립시킨 서구 인종주의 담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앞 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백인성을 인종의 지배 기표로 파악할 때, 그리고 백인성을 문화적 백인성과 권력으로서 백인성 개념들로 나눠서 생각할 때, 일본인 정체성이 상상적 동일시와 모방적 욕망 기제를 통해 백인성의 변형 가능성, 확장 가능성의 자장 안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분명해진다.

오노대위가 끝애를 향한 하타의 욕망을 매개하는 것과 유사하게 메리에 대한 하타의 욕망은 닥터 번즈에 의해 매개된다. 물론 오노대위와 달리 닥터 번즈는 이미 사망하고 없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메리와 하타의

6) 이와 관련하여 국내 논자 가운데 박수정이 K가 “순수한 일본인에 대한 하타의 환상의 대상이면서 그 환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중적인 존재”라는 예리한 지적을 한 바 있다(31).

첫 만남에서부터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으로 작용한다. 베들리 런 상류층 거주 지역에 튜더풍 집을 마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하타가 정원을 가꾸고 있을 때 이웃집에 사는 메리가 다가와서 말을 건다. 닥 하타라는 별칭 때문에 그녀가 자신을 의사로 오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하타는 사실이 아님을 밝히지만, 메리는 실제 의사든 아니든 그가 분명 의사 특유의 동작과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답한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하타는 메리의 전남편이 이 지역에서 저명한 심장외과의였음을 알게 되는데, 미국 이민행을 택하면서 포기한 그의 꿈이 바로 심장외과의였다. 이 첫 만남과 이어지는 만남에서 하타는 메리가 매력적이기도 하나, 특히 그녀가 인종 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스스럼없이 자신을 대한다는 이유에서 호감을 느낀다. 이후 메리는 써니에게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려 하지만 써니가 마음을 열지 않고 하타 역시 자기보다 써니의 양부 역할을 우선시하는 것을 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진다. 하타는 암에 걸린 메리가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었을 때에도 그녀를 찾지 못하고 얼마 후 사망 소식을 신문 지면으로 접한다.

하타와 메리의 관계는 내밀한 회한과 죄의식을 남기는 실패한 사랑이라는 점에서 K에 관한 이야기와 비슷하다. 하지만 하타의 1인칭 서사를 트라우마 서사로 만드는 핵심 내용들, 즉 K의 사망 전후에 벌어진 일들과 써니에게 강제로 시킨 중절수술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없기 때문에 독자에 따라서는 주변적이고 소소한 결가지 서사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 자체로는 서사적 동력을 갖추지 못한 소재인 셈이다. 그러나 K와 써니에 관련된 트라우마 사건들을 하타가 각각 14장과 16장에서 힘들게 고백한 후 이어지는 마지막 장 17장에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서술을 마무리하는 대신 그 직전에 메리와 결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들을 되짚어본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장에서 하타가 메리와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서사의 심층 구조에서 볼 때 어떤 중요한 의미작용을 시사하는 까닭이다. 하타의 자기 성찰과 지나온 삶에 대

한 최종적인 판단은 메리에 의해,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의해 내려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정말 예측불허군요, 프랭클린 하타. 제가 지금껏 알던 사람들과는 너무도 달라요”(347). 하타는 메리의 이 말을 곱씹으면서 17장을 시작한다. 메리의 이 말과 이어 등장하는 두 에피소드의 의미는 하타가 그녀에게 특히 매혹되었던 순간이 어떤 때였는지를 밝히는 다음 구절에서 암시된다.

[...] 비록 그녀는 전혀 입을 떼려 하지 않았지만 턱을 완벽하게 고정 한 그녀 얼굴의 섬세한 선들 사이로 실망이 내려앉는 모습이 보였다. 혈곡의 가파른 벽과도 같은 단호함이, 가장 부드러운 종류의 엄격함이 두 뺨에 묻어났다.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녀가 가장 사랑스럽고 매혹적으로 느껴졌던 때는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다. 그럴 때 그녀는 경이로울 정도로 차분하고 한 치도 흐트러짐 없는 의연한 사람 같았다.

[...] though she wouldn't say anything I could see the disappointment ever settling in the fine lines of her face, her jaw perfectly steady. There as a sheerness, the smoothest rigor to her cheek, as if it were the keen wall of a canyon. And it was in these moments, strangely enough, that I believe I found her most arresting and lovely, that she appeared to me exquisitely composed in character, her bearing deliberate and unrelenting. (53)

이 장면은 어느 날 함께 외출을 나갔다 돌아온 후 써니가 형식적인 작별 인사만 하고 바로 이층으로 올라가버리자 메리가 씩씩한 심정으로 거실에 앉아있을 때이다. 하타는 그 당시 깊은 좌절과 실망감을 애써 삭히며 평정을 유지하는 그녀의 모습이 “참 이상한 일이지만 가장 사랑스럽고 매혹적으로 느껴졌다”고 회고한다. 왜 하필 메리의 그런 모습이 하타에게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일까? 물론 일부 평자들이 주장하듯이 메리를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충실한 순종적인 여성 인물로 보고 이런 이유에서

그녀가 하타가 호감을 느낀 다른 백인 여성 인물인 앤 히키와 함께 끝애와 님은꼴인 “동양적” 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권택영 252). 즉 씨니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려 했지만 좌절을 경험해야 했고 그럼에도 극도의 자제심을 발휘하여 분노를 누르고 감내하는 ‘여성적’ 메리의 면모에 하타가 매료된다는 것이다.

욕망의 삼각구도와 백인성 개념을 렌즈 삼아 위 구절을 읽을 경우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메리를 묘사하는 데 동원된 표현들, “엄격함”(rigor), “성품의 차분함”(composed in character),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의연한 몸가짐”(her bearing deliberate and unrelenting)은 인종적 우월성의 표지로서 백인성에 부여되는 전형적인 속성들이다. 다른 한편,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은 의사, 특히 외과의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이기도 하다. 메리는 하타에게 닥터 번즈가 실력이 출중한 의사였지만 동시에 차갑고 메마른 완벽주의자였음을 암시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냉정을 유지하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닥터 번즈의 이미지가 위 구절에서 메리의 모습과 중첩되는 것이다. 즉 하타에게 메리가 가장 매혹적으로 느껴졌던 이유는 바로 이처럼 백인성의 정형화된 속성들과 (의사로서) 직업적 투철함 혹은 완전무결함이라는 두 가지 긴밀하게 관련된 우월성의 표지들이 겹쳐지는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메리를 향한 하타의 욕망은 사실 닥터 번즈와 메리가 공유한다고 그가 상상하고 믿는, 완전한 존재를 (허구적으로) 가리키는 인종화의 지배 기표로서 백인성을 향한 욕망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타가 되돌아보는 결별의 두 가지 계기들을 살펴보면 메리와의 관계에서 그가 원했던 것이 메리 자신이 아니라 닥터 번즈가 중개하는 상징적 백인성이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들의 관계가 한참 진전된 어느 날 공원모지 근처 숲에서 메리가 그를 원했을 때 그가 제대로 응하지 못했던 일이다. 물론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K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한 하타의 성적 억압을, 다른 한편으로는 아

시아게 남성의 육체와 섹슈얼리티를 비체화하는 인종적 거세 기제를 떠올리게 한다.⁷⁾ 동시에, 이 사건은 하타가 욕망한 진짜 대상이 메리와 메리의 육체가 아니라 그녀가 표상하는 상징적 백인성이었음을 암시한다. 배타적인 우월성과 흠결 없는 온전함의 표지로서 상징적 백인성은 메리가 육체적인 욕망을 그대로 발산하며 그에게 다가오는 순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환상이다. 자신의 몸을 하타에게 ‘여’ 메리의 몸짓은 하타에게는 그녀가 스스로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끌어내리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타는 상징적 백인성에 대한 환상과 욕망을 계속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메리와 관련된 두 번째 기억은 두 딸이 유산 상속에만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역시 써니 문제로 골치를 앓던 하타에게 저택과 나머지 재산을 모두 써니에게 물려줄 계획이냐는 메리의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하타의 대답으로 이뤄진다. 써니와의 엇나간 관계에서 오는 자신의 절망과 메리가 딸들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마음의 고통을 공유하지 못한 채 하타는 메리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라고 짧게 답한다. 이에 대해 메리는 “지쳤지만 엄격한 느낌으로” 입술을 꼭 다물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그와 가벼운 작별 키스를 나눈 후 “당신은 참 경이로운 사람인 것 같네요”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를 떠난다(351). 이 사건을 기억하기 전에 하타는 메리와 자신의 관계가 실패한 원인이 그녀로 하여금 “우아함”과 예의바름의 “두툼한 외투”를 벗어 던지고 마음 속 깊이 억압했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존재 대 존재로 만나 부딪치고 깨지도록 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349). 메리가 “여성으로서 겪어온 분노”를 터뜨려주지 못했고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한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349). 하타의 뒤늦은 회한은 “척하는 삶”을 살아온 그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가 사랑한

7) 예를 들어 K에 대한 트라우마적 과거로 인해 메리와의 관계가 실패한다는 해석으로는 Y-O Lee, 인종적 거세 개념에 대해서는 David Eng 참조

것은 그녀가 걸치고 있는 “우아함의 두툼한 외투”였던 바, 하타의 애정은 실은 인종적 우월성의 기표로서 백인성을 향한 욕망이었던 것이다(349).

K와 메리에 더해, 하타의 삶에서 역시 중요한 인물인 씨니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소설을 백인성과 백인성을 향한 욕망에 관한 서사로 읽을 수 있게 한다. 하타가 하층계급 한국인 여성과 흑인 미군 병사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 상상하는 씨니는 K와 한국인 정체성을 공유하지만 계급적으로는 대척점에 놓인다. 미국에 입양된 후 그녀는 하타처럼 백인성을 욕망하는 삶 혹은 그런 ‘착하는 삶’을 의도적이고 자기파괴적으로 거부하는 삶이라는 두 선택지 앞에 서게 된다. 비록 하타의 내면에 자리한 비밀스런 어둠을 꿰뚫어볼 수는 없지만 그의 소망충족적 믿음과는 달리 백인성을 향한 그의 욕망이 삶을 어떻게 허위로 덮어버리는지 어렵듯이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그에게 반항했던 씨니는 흑백의 이분법적 인종 구도 속에서 백인성의 욕망에 순치당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기파괴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씨니가 집을 나간 지 십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 흑인 남자 친구와 낳은 아들 토머스(Thomas)를 데리고 베들리 런에 인접한 에빙턴으로 이사를 오면서 하타는 그녀와 어렵게 다시 만나게 되고 토머스를 매개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된다. 여성의류판매점의 매장 관리자로 유능하게 일하며 최선을 다해 토머스를 키우는 씨니의 달라진 모습은 과거 지미(Jimmy)의 집으로 씨니를 찾아갔던 하타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 즉 링컨(Lincoln)과 지미 앞에서 그녀가 반나체로 유혹적인 춤을 추던 장면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링컨이 씨니를 격정적으로 껴안는 대목이 정형화된 흑인성의 요건들, 특히 흑인을 과도하게 성적인 존재로 만드는 기제를 통해 제시된다면, 소설 후반부는 씨니를 모성적 존재이며 ‘반듯한’ 시민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정형화된 흑인성의 요건들을 제거하는 흐름을 보인다. 것처럼 흑인성이 제거된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다름아닌 백인성과 백인성을 향한 욕망이다. 사실상 하타의 가게를 상속받게 된 씨니는 이제 어린 시

절 그토록 자신이 거부했던 하타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의 경로를 걸어갈 것이다. 이는 씨니가 하타처럼 주류 사회에 편입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백인성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백인성과 백인성을 향한 욕망은 개인이 희망하거나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종화 기제를 지속시키는 기표로서 백인성은 모든 주체들을 주체로 성립시키는 근본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씨니의 ‘변모’는 저항하는 주체 역시 상징적 백인성의 구조적 효과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4. 나오며: 차별적 상징자본으로서 백인성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덧씌워지는 ‘모범적 소수자’ 이미지는 이들 집단을 순치하는 동시에 흑인들의 인종주의 비판과 차별 철폐 요구를 배제하는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기능해왔다.⁸⁾ 『척하는 삶』에서 전형적인 ‘모범적 소수자’ 주인공인 하타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이자 그가 화재를 당했을 때 구출한 일을 계기로 급속도로 가까워진 리브 크로포드(Liv Crawford)는 그가 베들리 런의 일등시민일 뿐 아니라 “베들리 런 그 자체”라고 말한다(136). 리브는 물론이고 메리나 씨니에게도 자신의 과거사를 전혀 털어놓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말도 한 적이 없는 하타는 베들리 런을 대표하기는커녕 앞서 강조한 것처럼 늘 스스로를 일본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타 자신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과 별도로 이 소설은 미국 이민 이후 ‘미국의 꿈’을 누

8) 아시아계 이민자의 주체 구성에 관한 이론적이 논의로는 Koshy, 『척하는 삶』에서 모범 소수자 정형이 작동하는 양상에 대한 분석으로는 Chang을 참조함. Chang의 경우, 하타가 비록 전형적인 모범 소수자로 설정되어있지만 그가 “닥 하타”로 불리는 것 자체가 그의 정체성이 제스처에 불과함을 암시하며, 이 소설 서사가 모범소수자 지위를 공고히 하기보다는 해체하는 흐름을 보인다는 입장이다.

구보다도 보란 듯이 실현한 그의 삶이 철저하게 백인성을 향한 욕망에 기반했음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소설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의 튜더풍 저택은 그가 백인 주류 사회에 안착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 완벽하게 가꿔진 집 내부에 오로지 하타만이 살고 있으며, 이 집과 히키 부부에게 넘긴 그의 의료기가를 중심으로 하타와 백인 인물들의 관계가 펼쳐지는 점, 그리고 씨니를 제외하면 일본계나 다른 아시아계 주변 인물이 거의 부재한다는 점은 이 소설이 기존 이민자 서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남을 가리킨다. 서사 공간으로서 하타의 집은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민자 공동체의 내부적 측면들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해당하는 백인 주류 사회를 환유하는 것이다. 뉴욕에서 베들리 런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이들과 이들을 대리하여 리브가 특히 하타의 집을 탐내는 상황도 하타의 집이 그의 주체 구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시사한다. 그의 집이 하타가 실현한 미국의 꿈을 나타내는 증표이자 물질적 토대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또한 그 집에 살고 있는 하타에 대해 상징적 백인성과 그것을 향한 욕망을 나타내는 표지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하타와 같은 비백인 주체가 욕망하고 전유하는 상징적 백인성은 주요한 상징 자본으로 기능하며 이러한 까닭에 코쉬가 말하는 것처럼 권력으로서의 백인성이 비백인 집단에게 차별적으로 분배되는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자신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상징적 백인성의 기체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도록 초대받아온 집단이 바로 중상류계급 아시아계 이민자들이다. 『척하는 삶』은 상징적 백인성을 향유하며 살아온 이민자 주체로 하여금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오래 전에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 이곳 가까운 과거에 일어났던 내밀한 ‘실패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과정에서 그 실패들이 중첩되는 지점에 백인성을 향한 욕망의 다른 이름, 즉 지배자를 향한 욕망이 있었음을 드러나게 한다. 모든 인종 집단에서 하층계급은 (물론 다른 비율로) 존재하지만 ‘백인 쓰레기’

라는 표현이 뜻하는 것처럼 유독 백인 하층민들만이 쓰레기에 비유된다
는 사실은 백인성 자체가 계급적 지배를 의미하는 기표임을 가리킨다. 비
백인 집단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우고
완전히 동화되도록 강요당하지 않으면서도 계급 상승을 통해 상징적 백
인성을 할당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으로서 백인성의 변형과 확장성
은 다문화주의의 제도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⁹⁾ 본문에서 살펴본 『척
하는 삶』의 주요 인물들 중 오직 하타와 씨니만이 하층계급 배경을 갖고
있으며, 욕망의 삼각구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두 의사 인물들이 모두
상층계급 출신이라는 점은 백인성을 향한 욕망이 계급 지배의 필수적인
요건임을 시사한다.

『척하는 삶』의 초국가적 서사구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제국주의 지배와 억압의 역사를 20세기 후반 미국 사회의 현실과
공명하도록 만든다. 특히, 오노대위를 영국 유학과 출신으로 설정함으로
써 저자는 일제의 인종주의가 유럽과 미국의 인종주의와 겹쳐지는 양상
을 제시한다. 또한 이 소설 특유의 이중 서사는 하타가 지향하고 욕망하
는 두 가지 정체성의 기표들, 즉 일본인으로서 정체성과 백인성이 사실은
서로 중첩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즉, 오노대위가 표상한다고 하타가 믿고
그가 욕망하는 ‘순수한’ 일본인의 정체성은 인종의 지배 기표로서 작동하
는 권력으로서 상징적 백인성을 아시아 지역의 틀 안에서 대리하는 성격
을 띤다. 미국 이민 후 하타가 전적으로 자신을 일본인으로 간주하면서도
동시에 미국 중산계급 백인 사회에 완벽히 동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
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하타는 끝애의 원래 이름 대신 그녀를

9) 이러한 현상은 단지 일국의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자본주의
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초국가적이고 초민족적인 백인성, 가령 코즈모폴리탄 백인
성으로 확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른바 초국적 자본가 집단(TNC:
transnational capitalists)이야말로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이러한 의미의 백인성
을 전유한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Koshy가 지적하듯이 이들의 무소속성
과 혼종적 주체성은 제국주의적 지배와 인종화 기제로 인해 억압당하는 이들의 그
것과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

K로 줄여서 부르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그가 끝애에 관한 기억을 억압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자기 성찰의 회고 서사에서 하타는 K가 아닌 끝애를 과거사의 저편에서 소환하여 기억함으로써 애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하타 자신 미국으로 건너온 후 지로 구로하타 대신 프랭클린 하타라는 미국화된 이름을 채택했던 것처럼 그가 기억을 통해 소환하는 대상 역시 하타의 응시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개체라는 뜻에서 끝애가 아니라 백인성을 욕망하도록 조건 지워진 하타의 가공물로서 K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은 결국 위안부 재현 문제와 관련하여 『척하는 삶』의 정치적 효과가 지극히 문제적임을 시사한다. 끝애가 하타의 허위의식을 예리하게 통찰하여 그의 존재적 기반을 뒤흔들고 자신이 처한 상황의 모순을 직시하며 치욕 대신 죽음을 택하는 능동적 주체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일본인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이 백인성의 욕망과 중첩되는 이 소설의 구도 속에서 끝애의 예외적인 상류계급 배경은 그녀 역시 상징적인 백인성의 틀 안에 갇히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이 점이 위안부 인물을 비체에서 주체로 전화시키는 서사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때에도 이 소설 서사에 깊숙이 내재한 계급주의 이데올로기의 토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¹⁰⁾

결론적으로, 백인성의 전유와 확장은 상호모순적인 두 겹의 텍스트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일단 그것은 백인성 자체의 허구적이고 절대적으로 우연적인 속성을 노정한다. 유색인종 주체가 백인의 우월성을 보장한다고 생각되는 정형화된 자질들을 공유하고 『척하는 삶』과 같은 초국적이고 다인종적인 서사에서 것처럼 겹쳐지는 내용들이 뚜렷하게 드러날 때, 백인성의 전제들은 심각하게 침식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10)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해서 볼 때 『척하는 삶』의 다음 작품인 『비상』에서 저자가 자신의 문학적 배경인 아시아계 이민자 서사의 틀에서 벗어나 백인성의 핵심으로 접근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비상』의 주인공 제리 배틀(Jerry Battle)은 미국 사회에서 백인성이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탈리아 이민자 배경을 갖는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누려온 인물로서 저자는 이 작품에서 백인성과 백인성을 향한 욕망의 문제를 내부에서부터 묻고 있다.

서사가 백인성을 향한 욕망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 그것은 결국 백인성에 의해 지지되는 인종화의 논리를 강화하고 유지시키는 구실을 한다. 이 모순은 창래 리와 같은 아시아계 미국 작가들의 ‘혼종적’ 특징이 의미 있는 문화적 도전이나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초국가적 서사의 생산으로 귀결될 수 있으나 그와 동시에 주류 미국 출판 산업의 문화적 전유, 즉 다문화적 서사를 편안하고 즐겁게 소비하는 헤게모니적 담론 구조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Works Cited

- 김미현. 「동화와 전이: 이창래의 『제스처 라이프』. 『새한영어영문학』 52.2 (2010): 1-27.
- 박수정. 「고향 부재의 텍스트: 『제스처 라이프』에 나타난 귀속과 정체성의 문제. 『새한영어영문학』 50.3 (2008): 21-40.
- 유계분. 「재현의 윤리: 『제스처 라이프』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기억과 애도. 『현대영미소설』 13.3 (2006): 77-99.
- 이관수. 「자발적 포섭을 통한 동화전략: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백인화 욕망의 좌절과 타협. 『인문학논총』 39 (2015): 325-45.
- 이소희. 「『제스처 인생』에 나타난 젠더화된 트라우마. 『현대영미소설』 13.1 (2006): 133-56.
- Carroll, Hamilton. "Traumatic Patriarchy: Reading Gendered Nationalisms in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Modern Fiction Studies* 51.3 (2005): 592-616.
- Chang, Joan Chiung Huei. "A *Gesture Life*: Reviewing the Model Minority Complex in a Global Context."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7.1 (2005): 131-52.
- Cheng, Anne Anlin. "Passing, Natural Selection, and Love's Failure: Ethics of Survival from Chang-Rae Lee to Jacques Lacan." *American Literary History* 17.3 (2005): 553-74.
- Eng, David. *Racial Castration: Managing Masculinity in Asian America*. Durham: Duke UP, 2001.
- Engles, Tim. "'Visions of me in the whitest raw light': Assimilation and Doxic Whiteness in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Hitting Critical Mass: A Journal of Asian American Cultural Studies* 4.2 (1997): 27-48.
- Girard, René. *Deceit, Desire, and the Novel*. Trans. Yvonne Freccero.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6.
- Ignatiev, Noel. *How the Irish Became White*. New York: Routledge, 1995.
- Kalpana-Crookes, Seshadri. *Desiring Whiteness: A Lacanian Analysis of Race*. London: Routledge, 2000.
- Koshy, Susan. "Morphing Race into Ethnicity: Asian American and Critical

- Transformation of Whiteness.” *Boundary 2* 28.1 (2001): 153-94.
- Lee, Chang-rae. *Aloft*. NY: Riverhead Books, 2005.
- . *A Gesture Life*. NY: Riverhead Books, 1999.
- . *Native Speaker*. NY: Riverhead Books, 1996.
- Lee, Christopher. “Form-Giving and the Remains of Identity in *A Gesture Life*.”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14.1 (2011): 95-116.
- Lee, So-Hee. “Cultural Citizenship as Subject-Making in *Comfort Women* and *A Gesture Life*.”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4.2 (2006): 91-123.
- Lee, Young-Oak. “Gender, Race, and the Nation in *A Gesture Life*.”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46.2 (2005): 146-59.
- . “Transcending Ethnicity: Diasporicity in *A Gesture Life*.”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12.1 (2009): 65-81.
- Loewen, J. *The Mississippi Chinese: Between Black and White*. Prospect Heights: Waveland, 1988.
- Rhee, Suk Koo. “Consumable Bodies and Ethnic (Hi)Stories: Strategies and Risks of Representation in *A Gesture Life*.” *Discourse* 34.1 (2012): 93-112.
- Roediger, David. R. *The Wages of Whiteness: Race and the Making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 New York: Verso, 1991.
- Schiff, James. “A Conversation with Chang-rae Lee.” *Gulf Coast* 21.1 (Winter/Spring 2009): 321-37.
- Sedgwick, Eve Kosofsky.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NY: Columbia UP, 1985.
- Shin, Hyewon. “Ethnic Particularism and White Universalism in *Native Speaker* and *Aloft*.” *Studies in Modern Fiction* 20.1 (2013): 175-98.
- Warren, J & France Winddance Twine. “White Americans, the New Minority?: Non-Blacks and the Ever Expanding Boundaries of Whiteness.” *Journal of Black Studies* 28. (1997): 200-18.

■ 논문 투고일자: 2017. 04. 07

■ 심사 완료일자: 2017. 05. 02

■ 게재 확정일자: 2017. 05. 15

Abstract

Desire for Symbolic Whiteness in *A Gesture Life*

Yonghee Kwon

(University of Seoul)

This essay explores the psychodynamics of desire for whiteness in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referencing Girard's notion of mimetic desire and Seshadri-Crookes's conceptualization of whiteness as master signifier of race. I read Hata's failed relationship with Mary in the American story as significant as his love for Kkutaeh in the Asian story to suggest that Hata's subjectivity is determined by the overlap of Japanese identity and symbolic whiteness. The narrative's "gesture" of saving Kkutaeh from abjection is highly problematic in this regard. Her superior class position puts her alongside with Captain Ono, granting her symbolic whiteness. Mary represents the mythologized wholeness of being in Hata's racial imaginary, sustaining his desire for whiteness as power. Regarding Sunny, I examine how the narrative initially posits her blackness as the binary opposition to whiteness, but in the end makes her conform to the logic of whiteness mainly through middle-class domesticity.

Key Words

Chang-rae Lee, *A Gesture Life*, mimetic desire, symbolic whiteness, Japanese identity